

“한·중 불교 역사 키워드는 상호교류”

한중불교 교류세미나서 석길암 연구원 밝혀



3월 30일 중국 북경대학에서 열린 '한중불교교류세미나'에서 정병조 원정엔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세기에 불교가 이 땅에 처음 전래된 후 새로운 불교를 익히기 위한 구법승(求法僧)들의 행렬은 끊임없이 중국과 인도로 이어졌다. 신라 원광(圓光) 자장(慈藏) 스님을 시작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1,000여 명이 이르는 스님이 중국에 유학하며 불법을 익히고, 국내에 돌아와 법을 전했다.

● '한중불교교류 프로젝트'란?

불교가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 당사 통해 살피는데 의의

한중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중국 북경대학교 종교연구소(소장 류유얼)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중 불교교류 연구'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기 위해 떠났던 구법승들의 자취를 찾고, 그들의 중국 내에서의 활동과 치열한 구도정신을 되새김으로써 한국불교의 원류를 추적해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단순한 문헌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구법승들의 활동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그들의 흔적을 찾아가 불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한중 불교교류 연구' 프로젝트는 오는 8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그간 발표된 논문과 자료를 묶은 책으로 펴내고, 8차에 걸친 현장답사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구법승들의 경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구법 지도'도 작성할 계획이다.

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열린 '한중 불교교류 학술세미나'에서 '고려시대 해동불교 전집의 중국 유통에 대하여'를 발표한 석 연구원은 "한중 불교교류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상호교류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석 연구원은 "한국불교가 중국에서 성립된 한문 불교전적(典籍)의 바탕 위에 전개됐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동일한 한문(漢文) 문화권이었던 때문에 한국불교가 중국불교로 역수입되기도 했다"고

“한국불교가 중국에 역수입 되기도” 주장

원호 스님의 '대승기신론소' 등 사례 제시

발했다. 원호 스님의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별기> <이장의> 등의 저서는 늦어도 690년대에 중국에 전해졌으며, 오월 왕이 고려에 천태종 장소(章疏)를 구한 일 등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송대(宋代)에는 원호 스님의 <금강삼매경론>과 균어 스님의 <보현심중원주>가 전해졌다. 이어 대각국사 의천은 원호 스님의 <회엄경> 50권과 <당촉천시역> 80권 <덕종조약> 40권 등을 기증했다. 원대(元代)에 들어서도 고려의 대장경이 중국에 수출됐으며, 많은 사경승(寫經僧)들이 원에 진출해 대장경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석 연구원은 "한중 불교교류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화불

현대인 마음 불교로 치료해요

명상치료학회, 불교심리학회 잇달아 창립

늘 불안과 강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학술단체 두 곳이 잇달아 발족한다. 한국명상치료학회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4월 14일과 28일 각각 창립한다.

한국명상치료학회는 그간 명상상담연구원을 이끌어 온 인경 스님을 비롯해 우제선(동국대 불교학과) 임승택(경북대 철학과) 한자경(이화여대 철학과) 등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를 접목해 연구해 온 학자들이 모여 창립했다.

한국명상치료학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창립 발족과 창립학술발표회를 연다. '부다의 가르침: 명상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발표회에는 안양구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사교의 역기능과 그 해결-부처님의 가르침과 아른백의 인지치료를 중심으로'를, 김말환 교수(동국대 불교상담)가

'엄지관 명상의 심리치료 사례연구-군부대 우울증 환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02)2236-5306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불교에 기반을 둔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의 개발과 활용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의 수행법과 심리치료를 접목해 연구해 온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와 전현수 박사(정신과) 정문의,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대학교 불교학과)를 비롯해 정신치료학회, 심리학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창립학술대회에서는 김재성 교수가 '불교와 심리치료의 접목', 윤호근 교수(가톨릭대 심리학과)가 '온 마음 상담'을, 전현수 박사는 '불교적 접근을 통해 치료한 환자사례 발표'를 통해 불교와 심리치료의 만남을 시도한다. (02)890-2832

여수령 기자

동국포럼, 고려불화 국제학술대회

해담 스님 작품 70여점 전시도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와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포럼(이사장 정재철)은 4월 18-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고려불화 특별 전시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빼앗긴 민족문화 유산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18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3시 30분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내외 고려불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이어진다. 학술대회에는 허흥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데이비드 램버스 교수(하버드대), 이인자 전 경기대 교수,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이 참석한다.

30여 년 간 고려불화 복원작업에 매진해 온 해담 스님의 작품 70여 점 전시되는 '고려불화 특별초대전'은 세종홀에서 24일까지 계속된다. (02)2266-7308

여수령 기자

문화재청 범종 기록보고서 발간 왕흥사지 8차 발굴조사도 착수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2006 중요동산문화재 기록조사사업' 1차 조사 결과보고서 16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범종(梵鐘)-형·색·감>(사진)을 출간했다. 문화재청은 '범종'은 범종이 갖는 다양한 측면을 기록한 종합적인 기록 보고서'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백제 사찰 가운데 문헌 기록이 남아있는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에 대한 8차 발굴 조사를 3월 28일 시작했다. 조사는 7월 말까지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약탈문화재 환수 남·북 한목소리

일본에 대한 반환운동 공동 대처기로 합의

조선왕실의계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남·철안·김원웅)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 정서정)은 3월 23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이 강탈해간 문화재 환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가 체결한 공동합의서에는 일

본 공백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계 71종과 개성 화장사에 있던 '패업경' 반환운동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남측은 일본 도쿄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북측 출토 유물에 대한 자료도 북측에 전달해 반환 추진에 힘을 보탠다.

여수령 기자

천안 보명사 '53 선지식 초정법회'

전문가들의 진솔한 삶이야기

천안 보명사(주지 성문)가 4월 15일부터 매일 첫째 셋째 일요일 '53 선지식 초정대법회'를 병행한다.

이번 법회는 <회엄경> 입법계에서 선재동자가 각 분야의 선지식 53명을 찾아 구법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이 시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그들의 지혜와 경륜, 진솔한 삶

의 이야기들 들어보는 자리다.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입법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문한다. 5월 6일에는 조용한 조선일보 컬럼니스트, 20일에는 소설가 한승원씨, 6월 3일에는 우성택 삼성증권 자산관리센터 법회'를 병행한다.

보명사 주지 성문 스님은 "선재동자가 보심어 회까지 간절한 원력을 바탕으로 47지 항목을 실천지침으로 선정해 '선지식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41)522-3362 남동우 기자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지난 2003년, 대법원(2003다64381)의 "중현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중정이 없는 종단으로 되었으나, 200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05.비합.278)의 판결에 의하여 김대관(벽송)스님이 임시종정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본 종단은 종현, 종법에 따라 조속히 종회를 구성하여 종단의 안정과 재건을 기하고 하였고나 불미스럽게도 2006년 4월 4일 구성된 종회가 종현, 종법에 위배되는 불법 선출 등으로 참담하고 해괴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임시종정의 권한으로 종회 구성을 무효로 선포하여 이미 공포한 종령 2005-1 종령 2005-2를 보완하여 종령 2006-1 종령 2006-2 종령 2006-3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로써 2006년 9월 29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새로운 종회를 구성하여 종단이 재건되던 중, 돌연 2006년 11월 30일 임시종정 김대관(벽송)스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년 12월 4일 중앙종회에 참석하시어 10명의 종정추대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김대관(벽송)임시종정스님이 2007년 2월 1일 임시중앙종회 소집을 하시기에 사임의 뜻을 유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2007년 2월 1일 김윤철(향운)총 종정으로 취임한다하니, 2007년 2월 1일 소집된 임시중앙종회에서 김대관(벽송)임시종정의 사임서를 만장일치로 수리하였고, 따라서 2007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회에서(2007년 2월 1일) 종현, 종법 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우종산(청은)스님이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종도(승려)들은 종단분규를 조정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의 감언에 현혹되어 본의 아닌 해종행위를 하지 않기 바라며, 앞으로 종단 재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8월 8일 현대불교신문에 게재한 당시 임시종정 김대관(벽송)스님의 선계문에 의하여 2006년 4월 4일 선출한 종단임원 선출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하였고 종령 2005-12 종령 2006-1.2.3에 의하여 총무원장 서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5명, 지방교구

장등의 임명도 무효임을 선언한 바 2006년 9월 29일 이전에 임명된 모든 임원의 자격은 무효임으로 새로운 승적 및 임명장을 발급받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중부(승적부)에 임직되어 있는 종도(승려)들도 승려증 발행자의 대표권이 상실되었으므로 2007년 5월 31일까지 사담등록신청과 승려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우종산(청은)스님의 승인이 없는 대내외적인 공식 집회의 참석과 종회 집행기관 및 각종 위원회 등의 대한불교원효종의 명칭 및 직함을 도용하는 것과 본 종단 명의의 게시물을 대내외에 게시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현, 종법으로 엄중 문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행사 고발 조치할 것임.

5. 지난 2007년 3월 30일 개최한 "2007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회"에서 해종행위에 대한, 제3자 3명의 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선포합니다.

아 래

- 하영기(상운)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999
- 오양근(명수)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708
- 윤광진(원광)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443

상기자들은 종현 제98호, 종법(상법위원회) 제4장에 의거하여 제적처리한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301호 TEL 02)735-0503 / FAX 02)735-0506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30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우종산(청은)

전 종도에게 드립니다

2003년 3월 10일 이법종 전 종정에 대해서 원적하시면서 일부 불지각한 문도들이 아합하여 종관쟁탈의 시비가 야기된 것이 법란이 되어 법적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부산지방법원에서부터 법적 시비를 일으킬 수 없는 자들이 소송제기를 하였으므로 각각한다는 판결이 나니, 또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으로써 소위, 부산 측 대한불교원효종은 자멸이 되었고 서울 측 원효종은 개정 종현, 종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남으로써 대한불교원효종은 종정이 없는 종단이 되어버렸으므로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대관(벽송)스님을 임시종정으로 신청하였던 바 2005년 12월 14일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대관(벽송)을 임시 종정으로 선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본종에서 위촉, 임명 또는 선임된 임원, 의원 등 모든 임원의 직책은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임시종정의 권한으로 종단 재구성을 하게 되어 종현, 종법(구 종현, 종법)에 따라 종회의원을 선출하여 2006년 4월 4일 새로 구성된 제1차 종회를 개최하고 김윤철(향운)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우형은 스님을 종회의장으로 선출하였으나 구성된 종회가 어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종회가 무효임을 종정 선계문을 통하여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철(향운)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을 재조직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전 종도들을 현혹시키고 불교계에 본의 아닌 누를 끼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006년 11월 30일 전 임시종정 벽송스님이 임시종정을 사임하고 김윤철(향운)스님 측으로 자리를 옮겨감으로써 돌연 2월 1일 긴급히 임시중앙종회를 소집하여 노남을 제14대 원효종 종정으로 추대하여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여러분!

세간법에 앞선 불법으로 종생을 교화하겠다는 대 원력을 세우고 득도 출가한 우리들이 어쩌다 세간법에 떠들어 본의 아니게 타에 누를 끼치는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이제라도 우리는 삼보와 종조 앞에 크게 참회하고 출가의 본분을 다하는데 모두 지혜를 모아 종단 재건불사에 정진해 주실 것을 합장하는 바입니다.